



중국,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 동향

이소양 연구원

요약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보험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로 유럽 및 미국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중국 내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외국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중국 보험산업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2018년부터 중국 정부는 금융산업 전면 개방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진입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함¹⁾
 -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전면적인 금융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전면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됨²⁾
 - 2018년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 불균형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하면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심화됨
 - 중국 정부는 2018년 4월에 외국 보험중개회사의 영업범위 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2021년 12월에 외국인의 보험중개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손해사정회사 설립 요구조건을 크게 완화함
 - 2019~2021년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보험회사 소유(투자 포함) 요구조건 완화,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지역 제한 조치 폐지, 외국인의 생명보험회사 지분 소유 상한 폐지, 외국인의 보험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 여타 외국인의 보험산업 진입규제를 잇달아 완화함
 - 2020년 8월 중국 정부는 외국 보험회사(보험지주회사 포함)의 독자 자산관리회사(이하 '보험자산관리회사'라 함) 설립 및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가적으로 허용함
 -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가능 자회사는 자산관리상품(WMP),³⁾ 공모펀드,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시설 등 자산에 투자하는 자회사를 포함함
- 중국 정부의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외국 보험회사들이 중국에서 독자 법인을 취득·설립하거나 중국 보험회사 지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주로 유럽 및 미국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음
 - 중국에서 생보사 합작법인을 보유하는 독일 Allianz와 영국 HSBC는 각각 중국 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하였고, 독일

1) 德勤(2020. 6), “开放政策下外资险企在中国的新机遇”

2) 新华社(2018. 4), “大金融业开放彰显中国气度”

3) 자산관리상품은 중국에서 은행이 투자자에 고금리를 약속하고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채권, 대출 등으로 운영하는 상품을 의미함

ERGO는 합작법인 지분의 65%를 인수하여 지배권을 취득하였으며, 미국 CHUBB는 중국화태보험지주회사 지분의 83%를 인수하여 지배권을 획득함

- 중국화태보험지주회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산관리, 펀드 등 사업에 관한 자회사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독일 Allianz, 영국 Standard Life, 그리고 영국 AIA는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지만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해 새로운 중국법인을 각각 설립함
 - Allianz는 외국 보험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하였고, Standard Life는 합작 생보사를 통해 연금보험전문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AIA는 중국에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5개 지사를 하나의 중국법인으로 통합함
- 독일 Allianz, 영국 AIA, 독일 ERGO는 중국 사업의 빠른 확장을 위해 중국 보험회사 지분에 대한 투자를 각각 추진함
 - Allianz, AIA는 중국태강보험지주회사 지분의 4%, 중국우정생보사 지분의 24.99%를 각각 인수하여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으며, ERGO는 합작 생보사를 통해 태산손보사 지분의 24.99%를 인수하여 손해보험업에 진입함
- 우리나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여 기존의 독자법인을 합작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한화생명은 신규 투자를 받아서 기존의 합작 생보사가 중국 생보사⁴⁾로 전환됨
 - 삼성화재, 현대해상은 각각 합작법인 지분의 37%, 33%를 보유하여 단독 1위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화생명은 보유 지분이 기존의 50%에서 24.99%로 낮아져 2대 주주로 됨

○ 2018년부터 외국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중국 보험산업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⁵⁾

- 2018~2022년 중국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순차적으로 3.9%, 12.2%, 6.1%, -0.8%, 그리고 4.6%로 나타난 데 반면 외국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연도마다 10.0%, 29.9%, 15.2%, 4.9%, 그리고 11.1%임
- 외국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2018년에는 2,355억 위안에서 2022년에는 4,108억 위안으로 상당히 상승하였으며,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의 6.2%에서 2020년의 8.3%로 확대됨
 - 외국 생명·손해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2018년의 2,127억 위안과 228억 위안에서 3,275억 위안과 833억 위안으로 상승하였으며, 외국 생명·손해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18년의 8.1%와 1.9%에서 13.4%와 5.6%로 확대됨

○ 이러한 외국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와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외국 보험회사는 중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⁶⁾

- 2022년 74개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9개 사와 88개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10개 사는 모두 중국 보험회사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2.9%, 85.2%를 기록함
- 2022년 현재, 생명보험은 28개 회사 중 13개 사가, 손해보험은 22개 회사 중 6개 사가 적자를 보임

4)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최소한 25%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는 합작법인은 외국 회사로 분류됨

5) 金融时报(2023. 8), “保险业对外开放持续提速,外资控股寿险公司目录再扩大”

6) 证券之星(2023. 3), “2022年财险公司盈利改善,但预计今年车险出险率提升,保险业投资端继续承压”

〈표 1〉 최근 외국 보험회사의 진입규제 완화 및 사업 동향

외국 보험회사의 진입규제 완화	주요 외국 보험회사의 사업 동향
• 보험중개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손해사정회사: - 2018년 4월 외국 보험중개회사의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 대상 보험중개를 금지하는 영업범위와 같은 제한 조치 폐지 - 2021년 12월 외국인의 설립 요구조건 중 30년 이상의 경영경력, 2년 이상의 대표처 운영경력, 2억 이상 달러의 총자산과 같은 영업허가 제한 조치 폐지 • 보험회사: - 2019년 10월 외국인의 요구조건 중 30년 이상의 경영경력 및 2년 이상의 대표처 운영경력과 같은 영업허가 제한 조치 폐지 - 2019년 12월 외국 보험회사 영업지역 제한 조치 폐지 - 2020년 1월 외국인의 생명보험회사 지분 소유 제한 조치 폐지 - 2021년 3월 중국 보험회사의 투자 가능 외국회사는 보험회사에서 금융회사까지 확대 • 보험자산관리회사: - 2022년 8월 외국 보험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지분 소유 제한 조치 폐지	• 보험중개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 2018년 4월 영국 WILLIS 중국법인의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 대상 보험중개 자격 취득 - 2018년 6월 이탈리아 Generali 자산관리회사 중국법인 개업 - 2019년 5월 프랑스 AXA, 일본 MS&AD 중국법인의 자산관리회사 각각 개업 - 2020년 7월 영국 Prudential 중국법인의 자산관리회사 개업 - 2020년 9월 미국 CIGNA 중국법인의 독자 자산관리회사 개업 - 2021년 3월 미국 AON 중국법인의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 대상 보험중개 자격 취득 - 2021년 7월 독일 Allianz의 독자 자산관리회사 개업 • 보험회사: - 2019년 7월 한국 현대해상의 중국 현지 회사 투자 유치 - 2019년 11월 독일 Allianz 지주회사(중국) 신규 설립 - 2019년 12월 프랑스 AXA의 중국법인 독자 소유 - 2020년 4월 독일 Allianz의 중국태강보험지주회사 지분의 4% 인수 - 2020년 6월 독일 ERGO의 태산손보사 지분의 24.99% 인수 - 2020년 8월 영국 AIA의 중국법인 형태로 전환 - 2021년 1월 영국 Standard Life 연금보험전문보험회사 신규 설립 - 2021년 7월 영국 AIA의 중국우정생보사 지분의 24.99% 인수 - 2022년 11월 미국 CHUBB의 중국화태보험지주회사 지분의 83% 취득, 독일 Allianz의 합작 생보사 중국법인 독자 소유 - 2022년 12월 한국 삼성화재의 중국 현지 회사 투자 유치 - 2021년 12월 영국 HSBC Life의 합작 생보사 중국법인 독자 소유 - 2023년 8월 독일 ERGO의 중국 합작 생보사 지분의 65% 소유

자료: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